

정대협 : 제 93-38호

1993. 6. 28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부

제 목 : 유엔 세계인권대회 참가활동및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본 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25년만에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여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 자세한 활동내용과, 성과보고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보도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이호재. 윤정옥. 김희원(직인생략)

보도자료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유엔 세계인권대회 참가 활동

1. 개최장소: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센터

회의기간: 1993. 6. 10-12 NGO Forum

6. 14-25 본 회의

2. 한국정대협 참가자: 이호재 교수 (공동대표)
(5명) 김복동 할머니 (정신대 피해자)
정진성 교수 (조사연구위원장)
윤미향 간사 (실무자)
신혜수 교수 (국제협력위원장—UN)

해외 정신대문제 활동 교포단체: 김영호 목사 (뉴욕 정대협 대표)
곽상희 시인 (뉴욕 정대협 위원)
전옥숙 박사 (L.A. 정대협 공동대표)

아시아연대단체: 종군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일본)
TASK FORCE ON FILIPINO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JAPAN(필리핀)

3. 행사 및 활동:

- 1) 6월 15일: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형집회에 정진성 교수,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 정신대의 실상을 알리고 직접 증언함. (주최: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제목: Global Tribunal on Violations of Women's Human Rights.)
- 2) 6월 17일: 정대협이 필리핀, 북한과 공동으로 「아시아 여성 Forum」 개최. 제목: War Crim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Unresolved Case of "Comfort Women" in Asia. 한국, 북한, 필리핀에서 각각 1명씩의 정신대 피해자의 증언, 각 국에서의 정신대의 실상, 법적 책임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정신대문제 대책활동 소개등.

3) 정신대 문제 홍보 활동: 행사를 통해, 그리고 다른 NGO들과 정부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정신대 문제를 홍보하고 공감을 얻음.

4) 대회 선언문 중 정신대 관련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로비활동:

ㄱ)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부분 (유엔 문서번호A/CONF.157/PC/98의 Part III, II, C) 중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부분 (Paragraph 3) 마지막 두 문장이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re violation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Current violations of this kind, including in particular murder,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forced pregnancy, require a particularly effective response."

ㄴ) 4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인권대회를 위한 준비회의에서 일본이 주장하여 "current"라는 단어가 삽입되었다. 그대로 인권대회에서 통과된다면 정신대 문제는 제외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urrent"를 빼기 위하여 제안서를 만들고 아시아여성 Forum에서도 이를 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Women's Caucus 모임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여 여성계의 수정요구 내용에도 이것이 포함되었다. 일본 변호사연맹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문건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여 일본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ㄷ) 위의 제안서와 결의문등의 문건을 가지고 인권대회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을 30개국 이상 접촉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4. 성과

1) "current"의 삭제: 21일의 Drafting Committee에서 6개국이 위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물론 일본은 반대하였으나 의장이 "current" 대신에 "all"을 넣을 것을 제안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 25일의 본회의에서는 Drafting Committee가 수정한 대로 "all"로 통과되었다 (공식문서 A/CONF.157/DC/1/Add.1, page 23). 요미우리 신문에 이것이 일본 외교의 망신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8월에 있을 인권소위원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신대 문제에 대한 홍보효과: 위의 행사와 활동을 통해 정신대문제를 널리 알릴수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TV, 방송, 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한 매체: Superchannel, 오스트렐리아의 프리랜서 방송기자, Terra Viva (인권대회기간중 매일 발간된 신문), Spain National Radio, 브라질 방송 등.